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엄재국
(영농장 대표)

1. 양계 자조금 입법을 환영하며

지난 2002년은 육계인과 업계전체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한해였다. 육계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일반 사육자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계약 사육자들에게는 입식과 계약 조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새해에도 어두운 전망은 견혀지지 않고 있다.

수입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초생추의 생산잠재력은 많은데 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때에 마련된 자조금법(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은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지 않을까, 기대

해 본다.

2. 자조금 거출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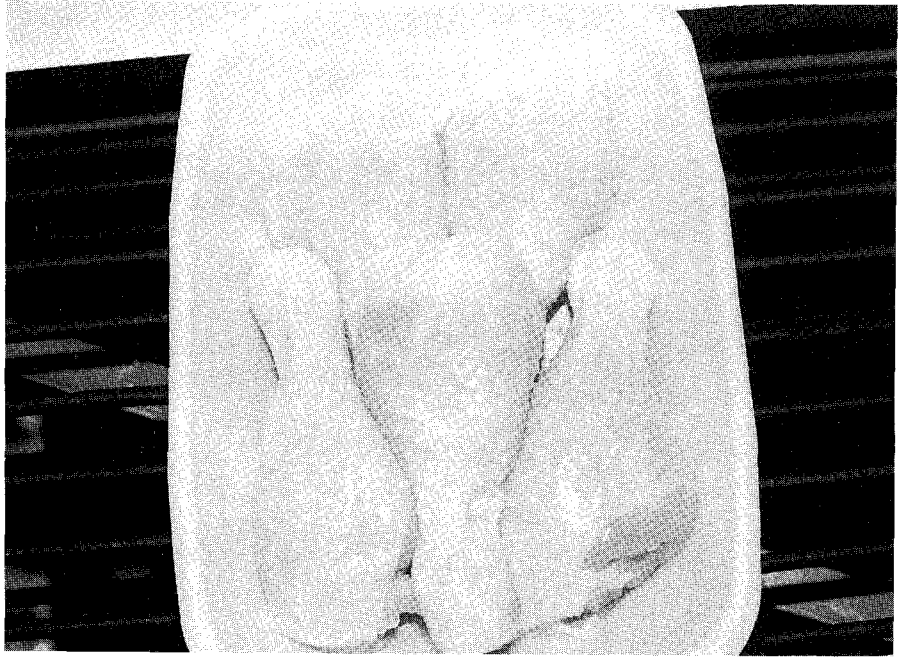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임의적인 자조금의 모금이 한계가 있음을 보아 왔기 때문에 의무자조금 제도가 가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모금단체는 이미 논의된 것처럼 도계장을 통해 거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모든 생산농가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후 잘못될 경우 과대로 부과 등이 손쉬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조금의 모금 액수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내에서 농가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않는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조금 외에 앞으로 기대되는 등급제 등으로 인하여 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생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약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3. 설치 단체에 관하여

한국인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집단 이기주의가 빠지지 않는데, 자조금 설치 단체와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떤 개인

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육계농가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상호 양보하는 태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육계산업 자체의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농협의 경우는 육계에 대한 인식도



나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계육 협회의 경우 각종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육계농가와 마지막까지 사활을 같이할 정도의 동반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므로 자조금법의 근본 취지와도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기존단체가 아닌 독립된 장소와 조직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자조금의 사용에 관하여

현재 육계농가의 어려움은 여러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농가의 피 땀으로 모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도 여러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단,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조금의 낭비나 누수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닭고기의 소비홍보를 생각할 수 있는데, 홍보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수입이 완전 개방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균형잡힌 견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 보다 생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 초생추의 품질개선 노력, 가격안정, 질병과 사양에 대한 교육, 발빠른 관측, 수입육에 대한 대처, 계약조건 개선, 불합리한 법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 등 시급한 문제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육계 자조금에 관하여 두서없이 개인 생각을 적어보았는데 법적인 자조금 마련이 생소한데다 본인의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어 잘못된 제안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꿈은 이루어 진다'는 희망으로 부디 양계 자조금법(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육계농가의 생존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